

#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 절실하다”

###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 “한국민속예술축제 대통령상 수상, 전통문화 역량 제고 기여”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올해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을 제안했다.



김남규 의원(송천동)은 8일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를 대표한 정통민속놀이 전주기접놀이가 올해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 전주의 전통문화 역량을 드높였다”며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도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기접놀이 마을인 합파마을이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토지구획공사와 협의를 통해 전수관 설치 노력을 경주,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를 추진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전주시의 행정적 지원 의사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주기접놀이 육성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주를 세계적 명품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한국적 도시 전주의 품격을 살린 핸드메이드 특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슬로시티제지정에 이은 전주만의 고유한 자원으로 핸드메이드시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월 추경에 9억원의 예산을 받아놓고도 핸드메이드시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은 더디지만 하달”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주보다 앞서 핸드메이드시대를 이룬 대구시는 북성로에 가죽공예 장인들을 중심으로 마을기업을 이루고 핸드메이드 특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전주도 민간중심 행정거버넌스로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사업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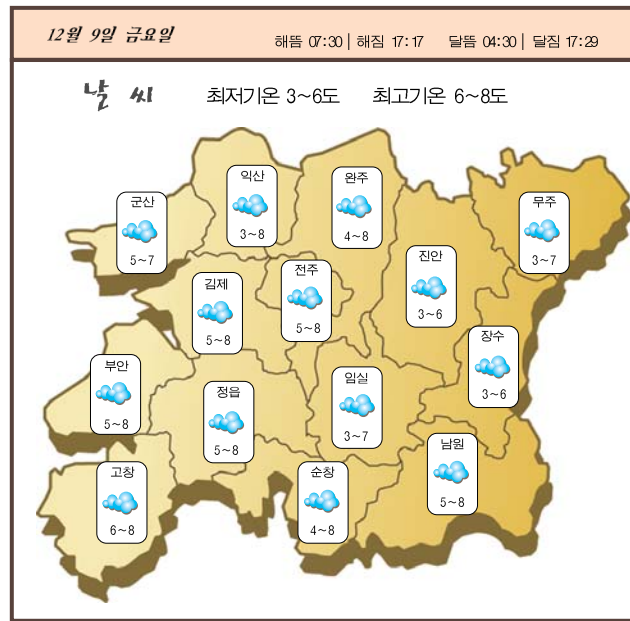
김 의원은 또 “민선 6기 들어 평화동 국민체육센터(110억),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100억),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90억) 등 많은 체육시설이 지어지고 있는데 실내체육시설의 바닥재질과 경기장 라인에 혼동이 없도록 LED라인의 글라스플로어(Glass Floor)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의 장점은 경기장 라인마크를 경기 종목에 맞게 조절할 수 있고 축구, 배구, 농구, 배드민턴에 경기장 라인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는 2005년부터 전주기접놀이 보전, 육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다”며 “예산뿐만 아니라 정기적 전승행사인 7월 백중 합굿놀이 개최는 물론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정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김 시장은 핸드메이드시티와 관련 “공예 디자이너 작가들이 전주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 전북교육정책연구소 ‘4차 산업혁명 교육격차 해소’ 주제 세미나

인공지능, 기계혁명 등 4차 산업혁명에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조합 미디어기획위원장) 위원장이 ‘협력과 공생을 위한 디지털레놀로지’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또 김환희 서울 송천초 교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인지기능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라북도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전북교육청, 도내 공·사립고 수업료 동결

입학금 2002년 이후 15년, 수업료 2008년 이후 9년째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7학년도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는 평균 화지역, 비평준화지역 읍·면·도시 지역에 따라 3급지로 나뉘는데 전주·군산·익산 등 평준화 일반군의 경우 수업료가 1분기 31만8천원이며, 입학금은 1만6천2백원이다.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업료는 분기별 25만5백원, 읍지역은 24만6천원, 면지역은 22만5백원이다.

## 전주시 사회적기업들, 소외된 이웃에 따뜻한 겨울 선물

### 저소득가정 200만원 상당 김장김치·라면 전달

전주시 사회적기업들이 저소득 가정에 김장김치를 지원하며 훈훈한 겨울 나기에 동참했다. 전주시 사회적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나눔봉사단(단장 심재균)은 8일 전북동 주민센터에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20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와 라면을 전달했다.



### 전북선도기업 최고경영자 혁신살롱

출범한 사회적기업 나눔봉사단을 중심으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집수리 봉사 1사1단지 사회봉사협약, 아동건강지킴이 협약, 엄마의밤상 후원 첫마중길 명품 숲 현수 등 정기적인 지역 사회 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균 사회적기업 나눔

봉사단장은 “지역 내 위기가정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지역문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지역친화적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학사업과 문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6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취약계층 고용과 지역특립 순환경제 구축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내적·외적으로 견실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상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1만장 기탁

전주상공회의소는 8일 전주시 효자동 한사랑복지재단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나눔 기부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선홍 회장을 비롯한 전주상공회의소 임직원과 전주연탄은행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선홍 회장은 관내 복지재단과 독거노인 등 가장행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 1만장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고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